

데스크 시국



김미은
문화부장·편집부국장

지난 10월 모 후보 대선 캠프 대변인을 지냈던 A씨가 SNS에 올린 글의 주인공이 화제였다. A씨에 따르면 그 주인공은 “나 때문에 이긴 거야. 나는 하늘이 낸 사람이야”라고 말했다. 그는 “한 시간이면 혼자서 59분을 얘기한다. 깨알 지식을 자랑한다. 다른 사람 조언은 듣지 않는다. 원로들 말에도 나를 가르치려 드냐며 화부터 낸다. 옛일로부터 배우려 하지 않는다”. A씨가 본 주인공은 그런 사람이다.

A씨는 사마천의 ‘사기(史記) 중 ‘항우본기(項羽本紀)의 한 구절 ‘자궁공벌(自矜功伐 스스로 공을 자랑하고), 분기사지이불사고(奮其私智而不遜古 그 자신의 지혜만 믿었지 옛 것을 본받지 않는다)’도 인용했다. 그리고 “누군가의 얼굴이 바로 떠오른다”고 썼다. 많은 이들이 같은 사람을 떠올렸다.

최재천 교수와 강기정 시장

기사를 보며 그즈음 읽었던 책의 한 대목이 생각났다. 생태학자 최재천 교수가 재미 언론인 안희경과 문답식으로 펴낸 ‘최재천의 공부-어떻게 배우고 살 것인가’다. 인상적이었던 대목은 충남 서천 국립생태원장 재직 시절 이야기. 학생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가진 터라 “상대가 이야기를 하게끔 하는 재주가 조금 있다”는 그가 생태원 경영자로서 약간의 성공을 거두었다며 그 요인으로 꼽은 게 있다. 바로 ‘이를 악물고

은편칼럼



옥영석
농협경제지주 마트전략부장

매일같이 해는 뜨고 지지만 요맘때는 왜 그리 해는 빨리 지고, 시간은 쏠살 같는지, 급급하는 기운보다 몸을 더 움츠러들게 한다. 서당개 삼 년이면 풍월을 읊는다는데 직장 생활 30년이 되어도 인사철만 되면 여전히 좌불안석이다.

승진하는 사람, 영전하는 직원, 가고 싶었던 자리에 가지 못해 실망하는 이, 함께 기뻐하고 축하할 일이 서너 건이면 안타깝게도 위로해야 할 일이 서너 배는 되는 것 같다. 승진이든 영전이면 비어 있는 자리보다 경쟁률은 늘 더 높기 때문이다.

새로운 자리에 올라 축하 잔치를 벌이는 것을 소미연(燒尾宴)이라 한다. 황하에서 가장 물살이 센 곳인 용문을 통과하는 잉어만 용이 될 수 있었다. 용문에 올랐다고 용이 되는 것은 아니었다. 하늘에 오를 때 반개가 나 내리치는데 꼬리를 태운 잉어는 용이 될 수 있었지만 꼬리를 미처 태우지 못하면 이무기가 되어 떨어졌다고 한다. 잔치를 벌여 마시고 먹는 것에도 무작정 부여라 마셔라가 아니라, 계급이 높아진 만큼 이전의 사고

기고



김순숙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이 막을 내렸다. 아르헨티나와 프랑스가 승부차기까지 가는 명승부 끝에 리오넬 메시의 아르헨티나가 월드컵을 거머쥐었다. 우리도 12년 만에 원정 16강 진출이라는 큰 성과를 달성하고 4년 뒤 월드컵을 더욱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월드컵이 세계인이 함께하는 축제라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대표자를 뽑는 선거가 구성원들의 참여와 화합으로 함께 만드는 축제라 할 수 있다. 월드컵이 지난 4년간의 노력을 평가받는 자리라면, 선거는 앞으로의 4년을 선택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지난 12월 15일 광주시선관위는 광주시체육회의 위탁을 받아 시체육회장 선거를 관리하였고, 각 구선관위도 구체육회장 선거를 관리하여 지난 22일 당선인을 결정하였다. 전국적으로 17개 시도와 228개 시군구에서 함께

“어금니가 아프도록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들었던 것’이다. 경영 실패증 중 하나로 삼은 생각인데, ‘어떤 일’을 경험하면서 더욱 철저하게 지켜나갔다.

국립생태원이 준비한 전시 개막이 3주 정도 남았을 때였다. 아무래도 직원들이 준비해 놓은 전시 구성이 아쉬웠던 그는 “시간이 촉박하지만 이런 것도 생각해 보면 어떠냐”고 넌지시 이야기를 건넸다. 며칠 후 회의 시간, 직원들은 그동안 논의했던 내용을 다 버리고 최 교수가 말한 내용을 가져왔다. “아니, 그동안 논의하셨던 내용은 다 어디 갔어요?”라 물었더니 “원장님 말씀이 가장 좋아 보여서 그 방향대로 잡았습니다”라는 답이 돌아왔다. 그는 아차 싶었다.

“조직의 리더가 되면 말이 많아집니다. 다들 잘 들으니까요. 그런데 리더가 입을 열면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아요. 집단지성을 이루고 창의성을 끌어내려면 리더는 어금니가 아프도록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처럼 이번에는 최근 본에 산 2000억 원 삭감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광주시와 광주시의회와의 싸움이 떠오른다. 정확히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광주시의회의 싸움이겠다.

유례없는 예산안 삭감을 놓고 양쪽의 설전이 벌어졌다. 강 시장이 “이번 사태는 의회의 예산관 남용이자 화풀이식 예산 삭감”이라 말하자, 의회는 “강 시장의 독선과 아집이 부른 참사”라고 맞받아쳤다. 시민단체 참여 자치 21은 ‘노회한 정치인’ ‘봉건시대 군주’라는 단어를 쓰며 “시의원들이 광주시민을 사랑하는 자신의 마음을 몰라 준다고 울분을 토하는 것은 리더의 마인드가 아니다”라며 강시장을 비판했다.

행정 경험이 없는 강 시장의 강점은 오랜 정치인 생활에서 갈고 닦은 정부 감각일 터다. 하지만 요즘 광주시정 주변의 이야기가 들어보면 그런 모습을 좀처럼 찾기 어렵다. 무엇보다 강 시장이 남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일과 관련해 시장을 만났

던 한 인사는 그의 다소 ‘공격적인’ 대화 방식이 놀라웠다는 말을 전해 주기도 했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고사하고, 측근들조차 제대로 의견 개진을 할 수 없다는 말도 들린다. 이것은 정말 큰일이다. 그들이 자기 검열에 빠져 주춤거리고, 시장의 눈치를 보며 평판이나 의견을 전달하지 않는다면, 그는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어등산 문제나 군 공항처럼 광주가 풀어야 할 숙제는 해답을 찾기 어려운 것들이다. 의욕적으로 추진하려는 공약 사항 역시 잘 따져 보아야 한다. 밀어붙이기식 일방통행과 고집을, 추진력과 그 추진력을 견인하는 소신으로 작각하지는 말아야 한다.

마음 열어 다른 의견 듣는 새해로

사실, 일상을 돌이켜 보면 지금까지 써 내려간 이야기에서 우리 모두는 자유스러울 수 없을 것 같다. 오프라인에서는 마음에 맞는 사람만 만난다. 예전에는 수많은 정보가 흘러 다니는 온라인상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마주했다면, 언젠가부터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듣고 싶은, 우리 편’ 이야기만 줄곧 듣게 된다. 그러다 보니 확장편향은 점점 더 심해지고, 남의 이야기에 좀체 귀 기울이지 않으려 한다.

시트콤 ‘순풍산부인과’에 등장하는 선우영녀는 곤란한 상황이 되면 “아, 몰라 몰라 몰라” 하며 상대방의 말을 무시하려 버린다. 우연히 어떤 드라마를 보다 이런 대사를 만났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납작아 본다” 고대의 말이라는데, 웬지 뜨끔해졌다.

어금니를 꼭 깨물지는 않더라도, 내가 말하기보다 남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 특히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이의 말을 마음을 열고 듣는 것,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새해를 앞두고 다짐해 보는 일이다.

/mekim@kwangju.co.kr

세밀 잡념

와 태도를 바꾸는 계기로 삼고자 했던 것이다.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부대껴 왔던 분들이 새로운 자리를 찾아 떠나고, 낯선 동료들을 맞이할 할 시간이다.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지만 늘 낯설고 어색하고 새로운 기분이 드는 순간들이다. 보따리를 싸고 사무 공간을 새로 만들다 보면 빈 의자에 앉아 차 한 잔 할 때 가 있다. 작업 중 휴식이나 아무 자리로나 앉으면 될 일이지만 상사의 자리는 앉지 않을 뿐 아니라, 남에게도 앉지 못하게 하는 선배가 있었다. 오래 전 일이니 상사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긴 했지만 유별나게 그럴 거가 지야 싶었는데, 그는 임원을 거쳐 대표이사까지 올랐다. 실력도 출중하고 관운도 있었다지만 평상시의 그런 태도가 쌓이고 쌓여 높은 자리까지 오르게 한 이유였을 것이다.

3-4년이면 다른 근무지로 이동을 하는 직장에서는 두 번 정도 같이 근무하면 인연이고, 세 번 만나는 경우가 드물어 필연으로 여긴다. 나는 30년간 딱 두 번의 선배를 세 번 만나 근무를 같이 했다. 한 번은 광주에서 두 번을, 서울에서 임원으로 근무할 때 모셨던 일이 있다. 인품이 뛰어나 주변에 늘 사람이 모였고, 매사에 긍정적인데다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상사들이 아껴 주었고 후배들이 늘 따랐다. 인사철이면 같은 사람을 두고 이쪽 저쪽에서 같이 전임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선임 팀장이 먼저 요청한 직원을 빼앗겼다고 갖은 곤욕을 치르기도 하였고, 하루 5시간씩 출퇴근하는 후배를 위해 인사 담당에게 아쉬운 얘기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다.

다른 한 분은 용모가 준수해 남자가 봐도 질투가 날 지경이었는데, 세 번씩이나 책상을 마주하고 일하다 보니, 용모보다는 일에 대한 열정과 원칙을 지켜 나가는 신념이 더 대단한 선배였다. 자신이 근무하던 사무소에 발령 받은 후배에게 몇 해 전 업무 일지를 뒤적여 내뱉어 준다는 착안 사항을 정리해 와 설명하시던 기억을 잊을 수 없다. 인수인계를 하다 보면 전임자가 부임지로 떠나기 마련이어서 시간에 쫓겨 마무리하고는 전화를 몇 번씩 주고받기 마련이지만 4년 전 전임자가 그토록 정성을 들이니 전임자와는 따로 인수인계가 필요 없을 정도였다. 인수인계서에 몇 자 적은 것을 빼고는 자신이 쓰던 PC를 포맷하고 가 버렸다는 직원이 있었는데 일 잘하고 영민하다고 소문이 자자했고, 선임견을 갖지 않으려 애써 보았지만 사람이 달라 보여 가까이하기가 어려웠다.

한파와 함께 30cm가 넘는 눈이 오고, 성탄절이 가고 한 해가 저물고 있다. 나름 바깥을 하려 애써 보았지만 어느 해보다 이른 것 없이 햇발질다 세밀한 흘러보냈던 무기력해지고 해 온 의지 박약을 탓하며 자책해 보지만 그리 낙담할 일만은 아니다. 내일은 또 해가 뜰 것이고 계획은 다시 세우면 된다. 세밀 해남이에 사진을 찍고, 새해의 해돋이를 보러 몇 시간씩 이동하며 수선을 떠는 이유는 새롭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연속적으로 흐르는 시간을 일, 주, 월, 년으로 나눠 부르며 구분하는 것도 새날이 오고, 한 주가 오고, 새로운 달과 해가 시작될 때 새로운 계획을 세워 보라는 의미 일지도 모르겠다.

민주주의, 생활 속으로 한 걸음 더

치러진 이번 선거는 2020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지역 체육회장 선거가 의무 위탁 대상으로 변경된 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처음 관리하는 체육회장 선거였다.

자유민주주의 관점에서 공동체 대표자의 선거 절차는 공동체가 직접 관리한다. 그럼에도 법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를 ‘위탁’한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회장직을 겸직해 왔던 지역 체육회는 그 지역 정치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다. 체육회 자체의 목적과 비전에 충실할 수 있도록 체육회장의 지방자치단체장 겸임을 금지하고 선거를 통해 선출하도록 하되, 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법을 개정한 것이다.

내년 3월 8일에는 전국 1353개 농·수협 및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실시된다. 그동안 조합장 선거는 조합의 소규모성, 내부 친밀한 연구 관계 등의 특성으로 인해 폐쇄적이고 외부 감시가 어려웠다. 또한 각 조합마다 선거 규정이 다르고 실시 시기도 제각각이며 사회적 관심이 낮은 탓에 불법적 공금 수수로 얼룩져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5년부터 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장 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하여 왔고, 2014년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임기 만

료에 따른 조합장 선거를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하게 된 것이다. 실제 지난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의 위법 행위 조치 건수는 전체 744건으로 제1회 조합장선거 867건보다 14.2% 감소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었다. 내년에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것이다. 중대 위법 행위 중 ‘돈 선거’ 척결에 단속 역량을 집중하고 불법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유권자도 사사로운 이익에 흔들리지 말고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본 후 현명한 선택을 하길 희망한다. 선거를 대하는 태도는 공동체의 종류, 선거의 성격에 따라 다르지 않을 것이다. 조합장 선거에서 후보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대동령을 뽑는 공직 선거나 아파트 동대표를 뽑는 생활 주변의 선거와 다를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명한 선택을 통한 공동체의 효용은 비단 해당 공동체의 발전에만 국한되지는 않을 것이다.

유권자가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모든 대표자를 정책과 공약에 따라 신중하고 현명하게 선택한다면, 우리 생활 속에 민주주의가 좀 더 튼튼하게 뿌리내리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社說

광주·전남 국비 12조 확보, 현안 해결 탄력받나

광주시와 전남도가 12조 원에 가까운 민선 8기 첫 국비 예산을 확보해 지역 현안 해결과 미래 성장 동력 육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는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638조 7276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을 통과시켰다. 이 가운데 광주시는 신규 사업 67건, 계속 사업 345건 등 3조 3081억 원의 국비 예산을 확보했다. 이는 올해보다 92.6% 늘어난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인공지능(AI) 융합 생태계 및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관련 예산이다. 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AI 집적단지 2단계와 인공지능 영재고 설립을 위한 용역 사업비를 추가로 반영시키고, 반도체 펌프 및 AI 반도체 실증 환경 조성 사업비도 확보했다. 514억 원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회계 사업비와 아시아 캐릭터 테마파크 조성 등 문화도시 광주의 위상을 높일 예산도 상당수 반영됐다.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 등 속원 사업 예산도 포함됐다.

전남도는 올해보다 2611억 원 늘어난 8조 6525억 원이 반영돼 2년 연속 ‘국비 8조 원 시대’를 이어갔다. 특히 전남의 미래 먹거리가 될 100건의 신규 사업 예산으로 1488억 원을 확보한 것이 고무적이다. 그린수소 에너지 섬 조성 등 차세대 그린 반도체 센터 구축, 국립 심뇌혈관연구소 설립, 우주 방사선 사이언스 컴플렉스 조성 등이 대표적이다.

시도와 국비 예산 증가율은 예년에 비해 크게 낮아졌지만 정권 교체 후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이고 긴급 재정 속에 예산이 상당 폭 삭감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선전했다는 평가다. 이는 시도가 수개월간 여야 국회의원들과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설득을 펼친 결과일 것이다. 내년에는 경제의 복합 위기가 심화될 것으로 예고된 만큼 어느 때보다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확보된 예산을 토대로 민생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지역 현안 해결과 성장 동력 육성에도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 인력 감축...청년 채용은 유지해야

정부가 공공기관의 정원을 지난 2009년 이후 14년 만에 대대적으로 감축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현재 44만 9000명인 공공기관 정원 가운데 2.8%인 1만 2442명을 구조조정하기로 의결했다.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인 나주 빛가람에 본사를 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 등 12개 공공기관은 1569명을 감축한다. 이는 나주 혁신도시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제출한 감축안(762명)의 두 배 가 넘는 규모이다. 12개 기관 정원은 현재 4만 8931명에서 4만 7362명으로 줄게 된다.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는 2만 3728명에서 내년까지 2만 3232명으로 496명을 줄여야 한다. 한편의 고유 목적 사업과 관련이 적은 청원 경찰과 검침 등 현장 인력 위주로 감축하게 된다. 또 한전을 비롯해 한전MCS(주) 612명, 한전KPS(주) 87명 등 한전 그룹사 다섯 개

기관은 총 1245명을 감축해야 한다. 농업 관련 공공기관들도 정원을 줄여야 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239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23명,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세 명을 각각 줄이게 된다. 정원 감축 인원 중 일반직과 무기직 비율은 6대 4 수준이며, 인위적인 구조조정 대신 퇴직과 이직 등 자진 감소를 활용해 정원을 감축한다는 게 정부와 공공기관들의 방침이다.

문제는 나주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대대적인 구조조정에서 나서면 광주·전남 지역 청년들의 취업문이 더 좁아지지 않을까 우려한다는 점이다. 이번 공공기관 정원 조정은 조직 및 인력의 효율화 등 ‘혁신’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고 한다. 그런 만큼 단계적인 초과 현원 해소로 신규 채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지역 인재 할당 등 지역 청년들의 신규 채용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無等鼓

일본은 2008년부터 ‘후루사토(고향납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촌향도(離村向都) 현상으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기 위해 도입했다. 자신의 주소지 자치단체를 제외한 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금을 공제해 주고 답례품을 주는 방식이다.

고향 납세 제도가 지난해에만 740만 명이 참여해 8302억 엔(약 8조 원)을 모금할 정도로 성과를 내고 있다. 최근 8년 동안 금액으로는 21배, 건수로는 23배나 급증했다. 홋카이도 시라누카정은 전체 세수의 여섯 배인 63억 엔을 기부금으로 확보할 정도로 지방 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있다.

98%의 자치단체가 기부자가 기부금 용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80%의 자치단체가 기부액과 활용 상황을 투명하게 공표하는 점도 제도 활성화에 큰 기여를 했다. 도쿄도 분쿄구는 크라우드펀딩 형식으로 모금한 기부금으로 푸드뱅크를 만들어 생활보조자 가정에 식품을 배달하고 있고, 인구 2700명의 홋카이도 엔베쓰초는 기부금을 활용해 기숙사를 증설하고 스마트 농업을 도입해 존폐 위기의 농업고를 살렸다.

기부금 유치를 위한 답례품 경쟁과 아이디어도 넘쳐난다. 사카타시는 바이오 매스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답례품으로 제공하는데 매달 전기료에서 비용을 빼는 방식이다. 후지에다시는 카페에 고향 납세 자동판매기를 설치해 즉석에서 결제하게 하고 답례품으로 호텔 숙박권과 골프채 등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내년부터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를 벤치마킹한 고향사랑기부제를 실시한다. 연간 500만 원 이내에서 기부할 수 있고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액의 30%를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벌써부터 자치단체 간 경쟁이 치열하다. 전남도는 특산품과 관광상품 등 118개의 답례품을 선정했고 영암군은 천하장사와 식사권을, 나주시는 지정 문화재 숙박권을 제공하기로 하는 등 이색 답례품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기대가 크다. 다만 시행 나흘을 앞둔 상황에서 기부제를 아는 사람이 10%에 불과하다니 적극적인 홍보가 절실해 보인다.

/정필수 사회담당 편집국장 bungy@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植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 화 사 업 국 220-0541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52	예 향 부 220-0692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경 회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21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전 남 본 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